

# 방역패스 앞둔 百·마트 “만반의 준비, 큰 타격 없을 것”

백화점, 정기세일과 맞물렸지만 오픈런 등에 ‘영향 미미’ 전망  
인력·QR 등 인프라도 이미 확보  
대형마트도 큰 걱정 없는 분위기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백화점과 마트는 출입 관리의 어려움과 식료품 등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곳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유통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대상으로 결정한 후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부딪히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모두가 방역패스 대상이 됐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미적용을 두고 방역적 위험성과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시

제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업계는 2일부터 일제히 정기 세일에 들어갔다. 정기세일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맞물렸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오전 롯데백화점 명동점 등은 개점 전부터 입장 줄이 길

게 늘어서는 ‘오픈런’이 연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방역패스와 관련된 지침이 지자체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내용을 전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할 예정인데, 이미 입구가 여럿인 경우에도 각 입구마다 담당 직원을 세워 QR코드 확

인을 꼼꼼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기세일에 방역패스가 주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15~16일까지 정기세일을 진행하지 않던 기간이 9일까지여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최근 백화점 매출을 견인하는 주요 상품은 객단가가 높은 명품·하이브랜드 상품인데, 1일 16% 가격 인상을 단행한 블랙스를 시작으로 명품 브랜드들이 대거 가격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오픈런’이 계속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트업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 후에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구축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분위기다.

한 마트업계 관계자는 “이미 진작부터 QR체크인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시행했고, 앞서 문화센터와 시식코너, 마트 내 식당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해 운영해온 만큼 추가 인력 고용 등으로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면 어느 정도는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는 판단에 자사 온라인몰로 고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으로 고객을 유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다른 마트업계 관계자는 “일부 마켓은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방역패스 기준인 900평에 대다수 마켓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마트와 마켓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마트 수요가 마켓으로 이동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다음인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동량이 직전 주인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보다 4.7%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지역별로는 관광지 방문이 전년도보다 35.1%는 것을 포함해 상업지역(30.3%), 사무지역(19.8%), 대형 아울렛(19.7%) 순으로 늘었다. 방역패스 제한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오히려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자기결정권 존중’... 청소년, 심야에도 게임 달린다

### ‘게임 섷다운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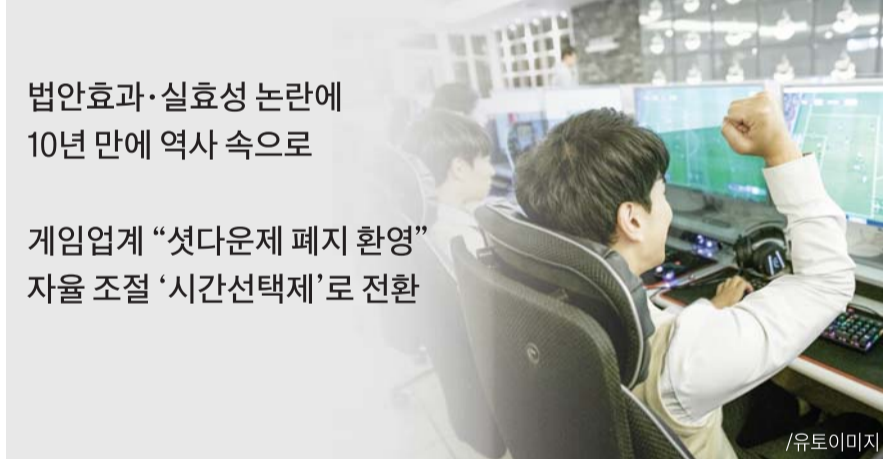
그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12시 이전으로 규제했던 ‘게임 섷다운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진행됐던 게임 섷다운제가 2022년부터 없어진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강제적 섷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고, 그해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1일부터 게임 섷다운제가 사라지게 됐다.

### ◆게임 섷다운제, 청소년 결정권·게임 업계 타격으로 비판

게임 섷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0시부터 6시까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게임업계의 수익에도 타격을 입히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법안 효과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



법안효과·실효성 논란에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 게임업계 “섷다운제 폐지 환영” 자율 조절 ‘시간선택제’로 전환

적도 있었다. 지난 2019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게임 섷다운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당시 정책권고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4차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현행 섷다운제는 수면권 보호라는 당초 입법목적에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데다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률적 강제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해법 등의 단계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게임 섷다운제 폐지에 대해 게임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섷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규제”라며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보완요소 마련  
다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성 방지를 억제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

만의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섷다운제를 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던 제도이지만 일률적으로 게임시간을 규제하던 게임 섷다운제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됐던 법안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게임 섷다운제가 폐지된 만큼 게임시간 선택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 교육부는 해당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모리터링 작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 현상을 조사하는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더 체계적으로 바꾸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게임중독 청소년 상담을 위해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한 검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

### 한화시스템

## ‘천궁 다기능레이다 PBL’ 500억 규모 사업계약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약 500억원 규모의 ‘천궁 다기능레이다(MFR)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까지 천궁레이다의 ▲재고공급·유지·단종관리 등 운영재고 관리 ▲다기능레이다 현장 정비 및 교육 ▲군수정보체계개발 시스템 최신화 및 성과지표 관리 ▲사업 계약·비용·원가정산·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전력화된 천궁 레이다 개발 및 양산 경험을 토대로 최적화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해 천궁체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모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은 “천궁·천궁-II MFR 개발·양산 및 최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천궁-II UAE 수출까지 최고 성능의 레이다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PBL 사업을 수행해 나가며 천궁 체계가 동률 향상 및 국방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2020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센서인 MFR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전력화 했다. /강준혁 기자

## 포스코SPS,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으로 사명 변경

###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확장

포스코SPS가 2022년 1월 1일부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기존의 철강가공업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부품 기업으로 업을 확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포스코SPS는 지난 해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스코모빌리티솔루

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명 변경을 위해 지난 9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사명 사내 공모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으로 사명을 최종 결정했다. 기존 사명인 SPS(Steel Processing & Service)는 철강가공센터만으로 인식되고 범위가 국한돼 친환경 소재·부품

사업을 지향하는 미래비전을 표현하는데 다소 제한적이었다.

새로운 사명은 최근 모빌리티 관련 산업의 성장과 투자가 집중되는 추세에 맞춰 차량, 선박, 자율주행차, 드론 등 전동화 장치가 필요한 분야는 물론 배터리, 연료전지 등 새로운 소재와 부품 등에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수소경제 및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천안 본사 로비 전경.

ESG 경영을 추구하는 포스코그룹의 경영방침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